

嘉禮都監을 통해 본 法服(翟衣)의 附隨服飾과 衣櫛(露衣, 長衫)에 관한 研究

白 英 子
德成女子大學 衣裳學科

A study on Court Dresses (Jeockyoe & Yoedae) in the Yi Dynasty

Yong Ja Baek
Duck Sung Women's College, Department of Clothing

Abstract

This study is a latter series of "A Study on the Changes of Court Dresses in the Yi Dynasty" (se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1, No. 2. 1977), and tries to discuss the additional clothing style--- Hapee(霞帔), Mal(襪), Sang(裳), Daedae(大帶), Pesle(蔽膝) and Seock(屨) as well as how to obtain the textile fabric used in queens' wedding ceremony and Noeyoe(露衣) and Jangsam(長衫).

Through Karedogam(嘉禮都監), it can be found that as queen's casual dress gold-round-pattern Noeyoe(金圓紋露衣) was used, and the royal princesses wore Dan Noeyoe(單露衣). Noeyoe was long in back and short in front and it was very luxurious with the two-phoenix pattern.

Jangsam was queens' casual dress, and the royal princesses wore simple and double Jangsam. In public, the wives of the officials above the 5th-Class in status wore Jangsam; Noeyoe is a higher-class dress than Jangsam.

I. 緒 論

本考는 "韓國衣類學會誌(1卷 2號)"에 실린 "嘉禮都監을 통해 본 李朝 宮中法服(翟衣)의 變遷"의 延長으로 前考에서는 歷代 嘉禮都監에 수록된 單子와, 增補 文獻備考, 國朝續五禮儀, 國婚定例, 尙方定例등 여러 文獻 내용을 비교하여 李朝 宮中 法服으로서의 翟衣의 變遷을 살폈으며, 本考에서는 前考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즉 法服(翟衣)에 딸린 附隨服飾인 霞帔, 裳, 大帶, 蔽膝, 襪, 屨등에 대하여 살피고, 한편으로는 嘉禮에 사용되는 織物을 어떻게 贈當하였는지 主로 都監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추려 보고자 한다.

그리고 法服과 함께 수록된 衣櫛는 妃嬪의 常服이던서 그 기본 양식은 宮中 女服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構造를 살피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우선 尙宮 內人의 禮服으로도 쓰이는 露衣, 長衫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나머지 衣櫛는 다음 기회에 차분히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우선 內容으로 들어가기 前에 歷代 嘉禮都監中에서 선택한 몇몇개의 嘉禮都監과 國婚定例, 尙方定例등에 나타난 服飾을 頭飾, 袍, 帶, 衣, 裳, 袴, 履, 附屬品으로 구분하여 表 I, II, III, IV에 정리하여 보았다. 法服과 衣櫛의 분류표시는 英祖 國婚定例에 준하여 정리하였고 袍, 衣등으로 분류하기에 곤란한 밝혀지지 않은 服飾은 옷감의 양과 관례에 비추어 추측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차후 服飾研究에 미루고자 한다.

表 I, II, III, IV외에 辛亥(光海 3年 世子嬪), 戊寅(仁祖 莊烈后 嘉禮都監儀軌, 仁祖 16年(1638)), 壬午(純宗 純明后 嘉禮都監 儀軌, 高宗 19年(1882))에 나타난 服

(表 I) 昭顯世子 嘉禮都監 儀軌(仁祖 5年 1627) 丁卯年

頭	飾	袍	帶	衣	裳	袴	履	附屬品
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冠冠減 髻髮 	<ul style="list-style-type: none"> 翟衣(無紋鴉青匹段)(內藍熟絹)(如貫子絹)三十六片 袂大衫(無紋大紅匹段)(內·木紅絹) 團衫(雲紋草綠匹段)(內·木紅絹) <p>※露帳(鴉青羅)</p>	佩玉	<ul style="list-style-type: none"> 袂襖(花紋大紅匹段) 景衣(藍紗) 	袂裙(花紋鴉青匹段)		<ul style="list-style-type: none"> 赤屨 襪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後胸背(波湯草綠羅)
衣	<ul style="list-style-type: none"> 簪 召 金釵 首紗只 (紫的羅) (月々只·紫的) (月々只·紅羅) (月々只·紅絹) 首靶一減 袂汝火 (紫的羅) (內紫的絹) (紫的鳳絲) (大紅真絲) 笠(目粒) (紫的絹) (內·紫的吐袖) 甫乙只一減 面紗(※도갈직云) (織全烏壽汶紫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露衣(袂一)도갈직云(全圓紋大紅匹段)(內藍熟絹) (杏袖圓紋藍匹段) (帶·紫的潤洲羅) 袂長衫(大紅匹段胸背) (內·藍絹) (杏袖白襪) (同正白襪) (胸背) 中衫 (黃紗) (潤正白紗) 潤汗衫(白生絹) 衫兒一六(白絹) (白鼎袖) 	<ul style="list-style-type: none"> 帶腰(紫羅) (紅羅) 帶子(大紅匹段) (藍紗) (類下品) 壽錄紙 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赤古里(六內三減) (草綠鳳花紋匹段) (內·紅熟絹) 草綠吐袖(內·大紅鼎袖) (中綿子) (藍綾) (內·黃熟絹) (同正白絹) (紫的絹) (楮生紙) 短赤古里(織金青匹段) (도갈직云) (大紅金線) (內黃熟絹) (楮生紙) 胡袖(紫的匹段) (도갈직云) (軟草綠吐袖) (內·大紅鼎袖) (內·紅絹) (紫的匹段) (中綿子) (楮生紙) 	<ul style="list-style-type: none"> 赤了(九內四減) (紫的膝蘭)도갈직云(內·白絹) (要及纓子并白絹) (中綿子) (紫的匹段)도갈직云(內·白絹) (要及纓子并白絹) (藍熟絹) (內·白絹) (要及纓子并白絹) (中綿子) (大紅吐袖) (內·白鼎袖) (要及纓子并白鼎袖) (中綿子) (藍吐袖) (內·纓子并白鼎袖) (厚貼金) (楮注紙) 	<ul style="list-style-type: none"> 袜裙(三內) (白匹段) (生白絹) (白匹段膝蘭) (도갈직云) (纓子白匹段并入) (厚貼金) 裏衣(四) (單袂各 2) (十一升泉袖) (內·白鼎袖) (白亭布) 		
襪								

(表 II) 顯宗明聖后 嘉禮都監儀軌(孝宗 2年 1651)

頭	飾	袍	帶	衣	裳	袴	履	附屬品
法		翟衣 (靑青花紋匹段) (內・冒段) 別衣 (大紅花紋匹段) (內・大紅花紋匹段) 內衣 (大紅花紋匹段) (內 ") 袂長衫(一) (無紋大紅匹段) 圓衫(一) (雲紋草綠匹段) (內木紅絹) ※霞蔽 (靑靑羅帶)	大帶 (草綠花紋匹段) (大紅花紋匹段) (內・白羅) (重多縹)	袂襖 (花紋大紅匹段) (內木紅絹) 景衣 (藍紗)	袂裙(一) (花紋靑匹段) (花紋藍匹段) (內・木紅絹) (縷子式大紅花紋匹段) ※經 (錦衣匹段) (內・大紅有紋紗) ※蔽膝 (大紅廣的) (內・大紅有紋紗) (多縹)		黑襪 (冒段) (內・藍羅)	編 (冒段)
衣	汝火(一)袂 (紫的羅) (內・紫的絹) 面紗(一) (紫的羅) (內紫的紗) (貼金) (泥金) (日夕只)	露衣(袂一) (金圓紋大紅匹段) (內・藍羅絹) (若袖圓紋藍匹段) (帶子・紫的潤洲羅 ・厚貼金) 袂長衫(一) (大紅花紋匹段) (大紅花紋匹段) (內・藍絹) (若袖白匹段) (同正白綾) (鳳胸背二部) 中衫(一) (黃紗) (同正白紗) 調汗衫 (白絹) 衫兒(二) (白縹) (帶子并入)	帶曠(二) (紫的羅) (紅羅) 帶子 (大紅匹段) (藍紗)	赤古里(三) (草綠鳳花紋匹段代 六花紋) (內・紅羅絹) (草綠吐袖) (內・大紅鼎袖) (藍綾) (內・黃熟絹) (中綿子) (同正白絹紫的縹) 短赤古里 (緞金靑匹段) (內・黃熟絹) (大紅金縹) (厚貼金) 胡袖(二) (紫的匹段) (內・紅絹) (軟草綠吐袖) (內・大紅鼎袖) (冷紫的匹段) (冷紫的吐袖) (中綿子)	赤了(五) (藍匹段) (大紅花紋匹段) (內・白絹) (腰及綿白縹) (中綿子) (紫的膝蘭) (厚貼金) (內・白絹) (腰及縷子白縹) (藍熟絹) (內・白絹) (腰及縷子白縹) (中綿子)	赤袴(一) (白匹段) (縷子等并) 裏衣(四) (內單袂升白水紬) (十一升白帛紬) (內・白帛紬) (白苧)		
襪								

(表Ⅱ) 國婚定例 中宮殿(8월 25일 尙方定例外 並用記載)

頭	飾	袍	帶	衣	裳	袴	履	附屬品
法	面紗 (紫的羅) (貼金) (泥金)	翟衣 (大紅鄉織) (內·大紅鄉織) (翟繼泥金) 別衣 (大紅鄉織) (內·大紅鄉織) 內衣 (大紅鄉織) (內·大紅鄉織) ※麗靴	五色多綵 大帶 (草綠鄉織) (大紅鄉織) (內·白羅) (背組)	蓋襖(一) (大紅廣的) (안·大紅袖) 褙赤古里(一) (紫的鄉織) (안·大紅袖) (中綿子) (楮注紙) (同正白絹) 褙赤古里(一) (草綠吐袖) (안·腰紅褂袖) (中綿子) (楮注紙) (同正白絹) 褙赤古里(一) (紫的絹) (안·大紅袖) (同正白絹) 褙胡袖 (紫的吐袖) (안·腰紅褂袖) (中綿子) (楮注紙) 景衣(一) (藍廣紗)	裳(前三裳後四) (藍鄉織) (內·白方紗袖) (褙子大紅鄉織) 後綴 (鋪衣鄉織) (內·大紅紗) 蔽膝 (大紅鄉織) (內·大紅紗)	串衣(一) (紫的鄉織) (內·大紅袖) 串衣 (草綠吐袖) (內·大紅袖) 褙裏衣(一) (白吐袖) (內·白袖)	赤襪 (大紅廣的) (안·藍羅) 赤屨	繡 (大紅廣的) 珮玉 白玉圭 味玉帶 胸背 4寸
衣	袂面紗(一) (紫的麗紗) (內·紫的廣紗) (厚貼金) (泥金) (月了只紫的絹) 首紗只(一) (紫的羅) (月了只紫的紗) 紫綉笠(一) (紫的袖) (月了只) 袂羅兀(一) (紫的羅) (內·紫的絹) (褙子紫的羅) (金錢紙) (每楮)	露衣(背背) (大紅鄉織) (內·大紅袖) (苔袖藍鄉織) (厚貼金) (胸背) 袂長衫(胸背)(一) (大紅鄉織) (內·大紅袖) (苔袖白色無紋綾) (同正白色無紋綾) (厚貼金) 衫長衫(一) (大紅廣的) (內·大紅袖) (苔袖白色無紋綾) (同正白色無紋綾) 中衫(一) (黃廣的) (同正白廣紗) 洗手長衫(一) (草綠褂袖) 潤汗衫(一) (白絹) 衫兒(一) (白絹)	帶腰(一) (大紅羅) 帶 (大紅鄉織)	袂赤了(一) (大紅廣的) (內·白褂袖) (腰褙子白絹) 褙赤了(一) (藍廣的) (內·白袖) (腰褙子白絹) (中綿子) 褙赤了(一) (紫的吐袖) (內·白袖) (腰褙子白袖) (中綿子)	袂赤了(一) (大紅廣的) (內·白褂袖) (腰褙子白絹) 褙赤了(一) (藍廣的) (內·白袖) (腰褙子白絹) (中綿子) 褙赤了(一) (紫的吐袖) (內·白袖) (腰褙子白袖) (中綿子)	花溫鞋 (紫的鄉織) 花溫鞋 (黑態皮)		
襪								

(表 IV) 純宗妃 嘉禮都監 儀軌(光武 10年 1900) 丙午年

頭	飾	袍	帶	衣	裳	袴	履	附屬品	
法	面紗 (紫的羅) (紫的羅) (貼金) (泥金)	翟衣(一) (深青彩翟紋匹段) (深青彩翟紋匹段) (紅·大紅織金) (紅·大紅織金) 雲鳳紋匹段 中單 (玉色紗) (紅·紅色紗) (泥金) 大衫 (大紅匹緞) (內·大紅匹緞) 內衣 (大紅匹緞) (內·大紅匹緞) ※(冒緞)	大帶 (青紅雲鳳) (織金匹緞) (大紅匹段半幅) (內·白羅半幅)	蓋緣 (大紅匹緞) (內·大紅水袖) 景衣 (藍廣紗) 翟赤古里(一) (紫的匹緞) (內·大紅水袖) (中綿子) (棉注紙) (同正白絹) 翟赤古里 (草綠土袖) (內·翟赤古里) (中綿子) (棉注紙) (同正白絹) 翟赤古里 (紫的羅) (內·大紅水袖) (同正白絹) 翟胡袖 濯汗衫 衫兒	綬 (錦衣匹緞) (大紅紗) 緣襖裙(前三後四) (紅色匹緞) (內·白方紗袖) (綠·綠綠織金彩花鳳紋匹緞) 蔽膝 (深青彩翟紋匹緞) (內·大紅紗) (羅·大紅織金) 雲鳳紡匹緞	串衣 (紫的匹緞) (內·大紅水袖) 串衣 (草綠吐袖) (內·大紅水袖) 襖裏衣 (白吐袖) (內·白羅袖)	青襪 (藍色匹緞) (內·大紅羅) 青屨	繡 (大紅匹緞) 佩王 白玉圭 味玉帶 胸背 4對 青屨	
衣	然面紗 (紫的羅) (厚貼金) (泥金) (月了只紫的羅) 首紗只 (紫的羅) (月了只紫的羅) 紫綉笠 襖羅兀	衾衣(胸背金圓紋) (大紅匹緞) (內·大紅水袖) (厚袖藍色匹緞) (胸背 2對) (帶·紫的羅) 衾衣 (青色胸背雲鳳) 雲緞匹緞 (內·大紅水袖) (同正白無紋緞) (畫紋泥金) 四搭襖子 (桃紅色金繡圓圓紋匹段) (內·草綠匹緞) (苦袖白紋緞) 中衫 (黃廣紗) (同正白廣紗半幅) ※綠襖襖子 (青色匹緞) (內·大紅匹緞) (羅·大紅織金彩雲鳳紋匹緞) 洗手長衫	帶腰 (大紅羅) 帶 (大紅匹緞)	蓋緣 (大紅匹緞) (內·大紅水袖) 景衣 (藍廣紗) 翟赤古里(一) (紫的匹緞) (內·大紅水袖) (中綿子) (棉注紙) (同正白絹) 翟赤古里 (草綠土袖) (內·翟赤古里) (中綿子) (棉注紙) (同正白絹) 翟赤古里 (紫的羅) (內·大紅水袖) (同正白絹) 翟胡袖 濯汗衫 衫兒	袂赤了 (大紅匹緞) (內·白羅袖) 袂赤了 (藍色匹緞) (內·白羅袖) (中綿子) 袂赤了 (紫的吐袖) (內·白羅袖) (腰襖子白羅袖) (中綿子)	袂赤了 (大紅匹緞) (內·白羅袖) 袂赤了 (藍色匹緞) (內·白羅袖) (中綿子) 袂赤了 (紫的吐袖) (內·白羅袖) (腰襖子白羅袖) (中綿子)	串衣 (紫的匹緞) (內·大紅水袖) 串衣 (草綠吐袖) (內·大紅水袖) 襖裏衣 (白吐袖) (內·白羅袖)	花溫鞋 (紫的匹緞) 花溫鞋 (黑唐皮)	
襪									

飾도 때때로 인용 비교하였다.

참고로 現在 남아 있는 嘉禮都監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丙亂前의 것은 소실되었음)

- 仁祖代의 「昭顯世子」, 莊烈后」,
- 顯宗 「明聖后」
- 肅宗 「仁敬后」 「仁顯后」 「仁元后」
- 景宗 「端懿后」 「宜懿后」
- 英祖 「貞純后」
- 眞宗 「孝純后」
- 莊祖 「獻敬后」
- 正祖 「孝懿后」
- 純祖 「純元后」
- 文祖 「神貞后」
- 憲宗 「孝顯后」 「孝定后」
- 哲宗 「哲仁后」
- 高宗 「明成后」
- 純宗 「純明后」 「純宗妃」

1 翟衣(法服)의 附隨服飾

1) 翟 被

續國朝五禮儀補(增補文獻備考內)¹⁾에 나타난 王妃 翟被는 「길은 黑緞, 안은 紅綃, 雲霞 28, 翟 26을 金繪한다」라고 있다. 都監中 辛亥에만 翟被가 빠진점이 특이하다.

사용되는 감으로 丁卯年(昭顯世子)과 顯宗妃時의 「鴉青羅 半骨 長 10尺」 그 이후 공통으로 昌緞 10尺 또는 6尺로 즉 반폭일 경우 10尺, 2장으로 이을 경우 6尺임을 알겠다.

수도사대 소장의 남치적의에 달린 翟被의 크기는 길이 5m 나비 10.5cm이며 검은색 공단에 鳳 26마리, 금박사이사이에 雲紋金箔을 찍고 분홍색 명주 안을 넣어 만들었다.

그리고 戊寅年 儀軌에 「代昌段 6尺(以作二隻 泥金 2 賤 畫金翟鷄 每 14씩)」과 아울러 실린 그림을 볼 때 (圖 1 참조) 遺物과 비슷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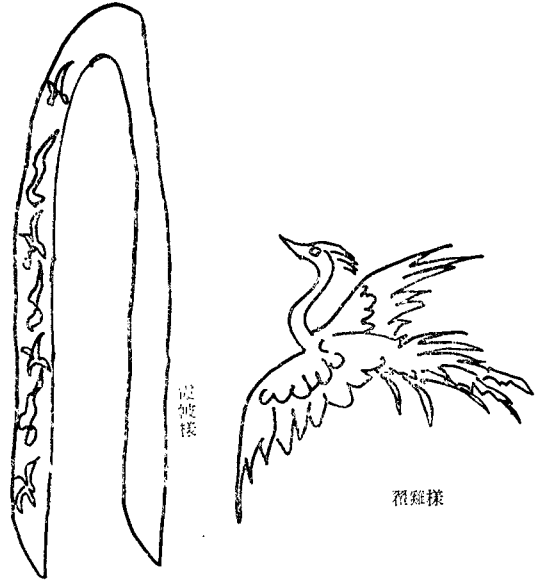
英親王妃 翟衣 사진의 翟被는 가장자리에 금박줄이 있는 점이 눈에 뜨인다(圖 2 참조).

翟被는 明의 大衫制度에 속하는 것이며 胸背는 鞠衣에 加飾하는 것인데²⁾ 우리나라 翟衣制度에 도입되어 중국제도의 中單에 대응하는 別衣, 內衣와 더불어 明과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圖 3] 明 仁宗孝文皇后像은 전신 사진이 아니라 명확하지는 않으나 大衫에 翟被를 걸친 모습이라 생각된다.

2) 裳

續國朝五禮儀補 王妃의 裳은 「青緞으로 前 3폭은 약



明寅年 嘉禮都監 儀軌

[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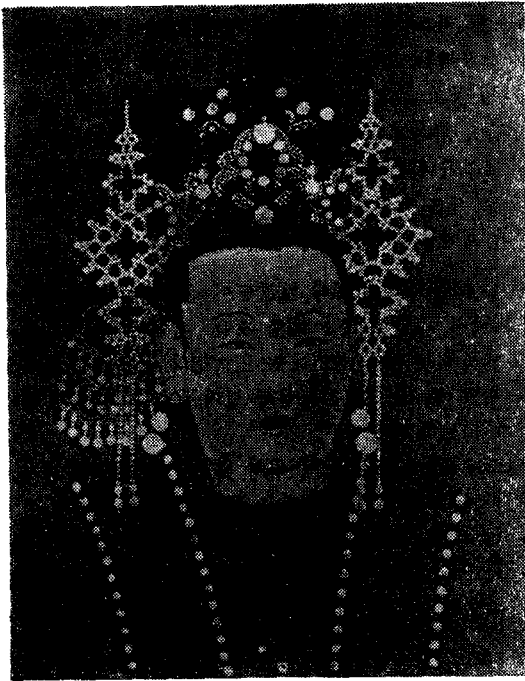


英親王妃 翟衣 입은 모습

[圖 2]

간 짧게 後 4폭은 약간 길게하고 각 두폭을 이어 꿰매서 서로 가리고 앞, 뒤에 주름을 아래, 위 같이 잡고 下端에는 緞金龍紋, 嬪宮은 「王妃制와 같으나 下端에 緞金鳳紋」이라 하였다(註 1 참조).

增補文獻備考에 실린 國末의 皇后, 皇太子妃의 服中



戊仁宗孝皇后像

[圖 3]

에는 裳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都監中 영조이후 비로소 등장하고 있으며(表 I, II, III, IV 참조), 그 내역을 살펴면 國婚定例에 王妃 裳 「藍鄉織 34尺, 內; 白方紗紬 24尺, 纓子 大紅鄉織 2尺 7寸」

嬪宮 「藍鄉織 28尺, 內; 白方紗紬 19尺」 그리고 純宗妃(尹妃)는 「紅色匹段 34尺, 內; 白方紗紬 一匹, 緣選; 緣織金彩花鳳紋 匹段 7幅七尺」으로 되어있다. 옷감 칫수로 볼 때 王妃(皇后)의 칫수가 嬪宮裳 보다 크다.

그리고 남색바탕에 大紅 끈이 있고 下端에는 龍(鳳紋) 織金이 된 裳에서 紅色바탕에 綠色織金選이 들린 裳으로 변천했다.

3) 大帶

續國朝 王妃의 大帶는 「겉은 大紅段, 안은 白綾, 緣選을 두른다」고 있다(註 1 참조).

都監中 顯宗妃時世子嬪의 大帶 내역은 (表 II 참조)

草緣花紋匹段 長 5尺 廣 4寸

大紅花紋匹段 半骨 5尺 5寸

內·白羅 半骨 5尺 5寸

童多繪

尙方定例 王妃 大帶의 내역은 (表 III 참조)

草緣 鄉織 6尺(嬪宮의 경우 長 5尺 廣 4寸)

大紅 鄉織 半骨 6尺

內 白羅 半骨 6尺

青組 1부 藍眞絲 2냥 6돈

으로 위에 적은 續國朝의 내용과 함께 미루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모양이 아닌가 한다.

草緣(青)	
大	紅

(뒷면에 青組 부착)

[圖 4]

다음 國末의 增補文獻備考 皇后의 大帶는 「겉과 안이 다 함께 靑紅이 相半되게 하고 그 끝은 純紅으로 하며 雲龍紋(雲鳳紋)을 織金한다. 靑에는 紅緣, 紅에는 靑緣으로 하고 副帶가 달린다」(註 2 참조)

이 내용을 기초로 형태를 추측하여 그려 보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한다.

靑組	副帶	大紅	靑紅
----	----	----	----

(뒷면에 靑副帶 부착)

[圖 5]

그런데 國末 쟁존하여 皇后의 稱號를 받은 유일한 분이었던 純宗妃 尹氏의 大帶 내역은 (表 IV 참조)

靑紅兩色 織金雲鳳紋 匹段 6尺

大紅匹段 반폭 6尺

內白羅 반폭 6尺

靑組

로 이는 顯宗妃 부터 純宗妃까지 길이, 폭, 색에 이르기 까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增補에 실린 皇后의 大帶는 制度上的 마련이었을 뿐 실행을 보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만들어 착용한 경우가 아닌가 여겨진다.

4) 蔽膝

續國朝 王妃와 世子嬪의 蔽膝은 「빨간 바탕에 無繪」이고

增補 皇后(皇太妃)의 蔽膝은 「深靑翟紋三(二)等 사이에 小輪花四(三), 紅襖을 두르고 雲龍(鳳紋)을 금박」으로 되어있다.

都監中에는 顯宗妃時에 (表 II) 처음으로 나오며 단자 내용으로 보아 영조 國婚定例 제정시까지 (表 III 참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가 皇后제도로 바뀌면서 純宗妃의 (表 IV 참조) 深靑에 翟紋이 있는 폐슬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5) 襪 寫

續國朝 王妃(嬪)의 襪寫은 「緋襪, 靑寫(赤) 신끝에 紅綠絲花」.

增補 皇后(皇太子)의 襪寫은 「靑襪, 靑寫, 신에 雲龍(鳳)紋, 금박, 皂色선을 두르고 구슬 5(3)장식」으로 되어 있다.

都監중 辛亥, 丁卯까지 赤襪, 赤寫, 顯宗嘉禮時는 黑色, 英祖代 王妃는 赤襪, 赤寫, 嬪은, 黑襪, 黑寫, 그리고 寫의 끝에 紅綠絲花 사용, (純宗妃) 尹妃時는 靑襪, 靑寫 사용을 확인한다.

2. 織 造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商工業의 抑制라는 전통적인 政策과 더불어 中國으로부터 大量 輸入되는 高級絹織物에 눌리어 衣料手工業은 沈滯狀態에서 헤어나지 못하였고 各種織物의 生産이 不振하였다고 보겠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嘉禮에 사용하기 위한 織造가 어느 정도 시행되었는지 嘉禮都監에 실린 內容을 중심으로 알아 보기로 하겠다.

○ 昭顯世子 嘉禮時 嘉禮都監에서 「嘉禮時 翟衣, 翟冠을 傳敎로 減하라 하였는 바 이제 次知 內官이 下吏를 불러 물으니 翟衣는 命服이라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하니 어찌한 것인가고 啓함에 都監이 재당하여 처리하라는 分부가 있었다」⁶⁾

壬亂, 兵亂후는 物力이 탕진한 시기였기에, 뒤에 번복되기는 했으나 翟衣마저도 減하라는 傳敎가 내려졌으며 그 이후 누대에 걸친 嘉禮都監에도 낭비를 막아 극력 物目을 裁減하는 추세가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嘉禮에 쓰이는 직물을 예전대로 中國産 比단을 수입해서 쓰는 감당하기에 무리한 財政이었을 것이며 또한 兵亂후의 淸 勢力圈에 들어간 시기에 中國産을 계속 수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歷代嘉禮時에는 사치를 막는 방편으로 自國의 織造가 論議되고 실시되었다.

○ 孝宗 2年 顯宗妃 嘉禮時 都監에 辛卯 8月 5日 「尙衣院 官員이 提調의 뜻으로 啓하기를 初三日 宣講時에 同知事 閔應亨이 啓한 尙房織錦事로 인해 承知가 尙房에 나아가 織造를 罷하는 命을 傳하였다. 本院이 매년 織造하는 四色六段十二匹의 직조는 채 시작되지도 않은 형편이다. 이제 中宮冊禮, 世子冠禮, 冊禮에 翟衣 龍袍 등은 法服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니 嘉禮에 사용되는 비단을 차제에 登錄에 의거하여 직조함이 마땅하다.

중전에는 市中에서 무역하여 얻을 수 없는 것은 부득이 직조하여 썼거니와 이제 직조하는 것은 大禮에 소용되는 것인데 停罷하면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고 尙方織造를 청하나 孝宗은 「국민들이 宮內에서 멋대로 尙衣院을 시켜 직조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니 都監에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분부하나 都監에서는 六禮가 임박하여 法服을 직조하여 거행하기 어려우니 停罷함이 좋겠다」 하였다.⁵⁾

○ 孝宗2年 8月 實錄에 閔應亨이 追言하기를 「臣이 筵席에서 尙房 織造를 罷할 것을 청하여 停罷의 命이 내려졌으나 이제 듣건대는 王大妃의 翟衣가 필요하다 하며 또 翟衣는 法服인데 알지 못하고 청을 드려 황공하다」고 하였다.⁶⁾

顯宗 嘉禮는 12月이며 위의 啓한 시기는 8月로서 촉박하나나 嘉禮에 소용되는 織物의 尙房織造가 이루어졌으며, 尙衣院에서 매년 四色六段一二匹이 직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昭顯世子 嘉禮時 面紗; 織金鴛鴦紋, 紫의紗, 露衣; 金圓紋, 大紅匹段, 短赤古里; 織靑靑匹段, 胡袖; 紫의匹段, 赤尙; 紫의匹段 紫의膝蘭 등 주로 織金紋 織物이 都監織造 內入으로 되어 있어 이들이 앞서 기술한 顯宗妃 都監에서 이른 바 市中에서 무역하여 얻을 수 없는 것으로 織造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⁷⁾

○ 역시 顯宗妃 嘉禮時 辛卯 7月 29日 都監에 「本院의 敎命에 쓰이는 직물은 전례에 따라 尙衣院에서 직조하고 都監이 繪粧하고 織造에 드는 雜物은 전례에 따라 마련하여 淸보토록 尙衣院에 分부하여...」라고 있어 직물은 尙衣院이 직조하고 都監에서 繪粧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

○ 肅宗7年 仁顯王妃 嘉禮時 都監에 中殿衣襖에 소용되는 匹段은 戊寅前例에 따라 尙房에서 직조하고 敎命 및 翟衣에 쓰이는 各양의 織造는 戊寅年에는 都監이 맡고 그 후 嘉禮에는 尙房이 織造하였으니 지금은 近例를 좇아 尙衣院을 시켜 속히 마련하여 거행하자고 稟하고 있다.⁹⁾

○ 英祖代에 이르러 國婚定例에 「王妃, 嬪宮, 嘉禮 法服에 쓰이는 紋緞은 鄉織으로 대신하고 王子, 公主, 翁主, 命服의 紋緞은 廣의으로, 기타의 緞類는 廣의으로, 紋紗는 廣紗, 紫陵褥는 吐袖로 대응하라」¹⁰⁾고 있으니 이도 尙衣院에서 직조하였을 것임은 의당하리니와 다만 紋緞에 대한 鄉織 廣의 등 일체를 自國産으로 하며 무늬있는 것을 피하는 등 길을 닦

춘 비단을 사용토록 규제하였다. 이렇듯 검박한 英祖의 기풍은 몇대를 못 이어지고 다시 사치를 다한 규모로 거행된 듯하다.

마지막 가계인 순종 尹妃의 翟衣는 彩翟紋匹緞織, 金雲鳳紋匹段으로 직조되었음을 보겠다.

3. 衣 褂

1) 露 衣

長衫과 對가 되는 것으로 중국계통에서 나온 袍종류에 속하는 것이겠으나 그 제도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

은 상태이다. 자주 引用되고 있는 太宗時 司憲府가 올린 上疏文에는 「露衣 襖裙 笠帽은 尊者의 服이다, 지금은 混用되어 尊卑를 判別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四品以上 正妻인 자는 露衣 襖裙 笠帽을 쓰고 五品以下 正妻인 자는 다만 長衫 襖裙 笠帽을 着하되 露衣를 입지 못하게 할 것이다」¹¹⁾라고 있어 露衣를 長衫보다 上服으로 취급하고 있다.

衣

前短後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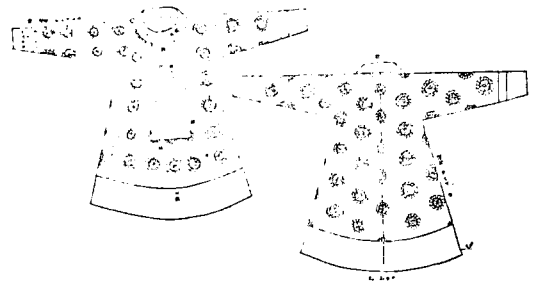


露衣樣

前 後 左右
付 金 圓
一 寸 十
五

戊寅年 露衣都監 儀軌

〔圖 6'〕



〔圖 7〕

都監에는 妃, 嬪의 常服으로 長衫과 아울러 金圓文 露衣(表 참조), 公主, 翁主, 大君夫人禮服으로 單露衣(大紅)가 사용되고 尙宮 嬪母以下는 사용치 못하고 있다.¹²⁾

戊寅年 都監에 나타난 露衣 樣으로 볼 때 (圖 6') 이 도 앞서 翟衣와 마찬가지로 뒤가 길고, 앞이 짧은 모습으로 추측된다(圖6, 圖7 비교) 文樣은 애초부터 金圓紋大紅匹段으로 織造되어 나오는 때(辛亥, 丁卯, 顯宗妃)도 있으나 大紅匹段에 금박하는 경우도 있다. (戊寅, 國婚, 壬午, 尹妃) 금박의 방법 역시 戊寅年都監에 記述되어 있다. 朴達木에 새겨 付金한 315個의 雙鳳紋(圖 6)은 露衣의 화려한 양을 상상케 해준다.

여러 都監에 (表 참조) 「苔袖 圓紋藍匹段 3尺 6寸」이 있어 남색 汗衫이 붙었음을 알 수 있다.

英祖代의 王妃와 純宗妃(尹妃)의 경우는 露衣 1필, 苔袖 4尺, 昭顯世子, 顯宗妃의 경우 露衣 23자 6치, 苔袖 3尺 6寸으로 전체 옷감 소요량과 소매통이 王妃의 경우가 嬪의 경우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때로 露衣帶가 부착되는데 영조代 이전은 紫的羅, 영조 이후 王妃 紫的羅, 嬪宮 藍鄉織, 純宗妃 紫的羅이며 치수는 長 4尺, 廣 8寸이다. 또 露衣帶에는 “厚貼金”으로 되어 있어 금박으로 꾸며졌음을 알 수 있다.

胸背는 영조시부터 2짝이 大紅으로 직조되어 첨부되었다.



朴 達 木
刻 成 付
金

〔圖 6''〕

2) 長 衫

露衣와 마찬가지로 大袖의 袍이다. 四禮便覽에 「大 衣는 色紬로 만들며 그 제도는 俗稱 唐衣와 같고 넓고 크다. 길이는 무릎까지 오고 소매가 크며, 소매 길이는 2尺 2寸(周尺)이고, 소매가 둥글다. 일명 大袖 또는 圓衫이라 하니 즉 五禮儀의 本國 長衫이다」라고 있어 大衣, 大袖, 圓衫, 長衫이 대개 같은 종류이며 길이는 무릎까지, 소매 길이는 2尺 2寸(周尺)인 것이다. 都監에는 胸背袂長衫으로 혹은 그의 袂長衫까지 포함하여(國婚중 王妃, 壬午) 妃, 嬪의 常服으로 사용되며 公主, 翁主, 大君夫人의 禮服으로 單露衣와 袂長衫이 입혀진다. 尙宮以下 侍女, 騎行內人은 單長衫이며 步行內人以下는 長衫없이 赤尗 赤古理 뿐이다. 妃嬪은 大紅匹段이 사용되었다가 英祖代의 王妃는 大紅 鄉織, 공주는 大紅 廣的, 尙宮은 鴉靑紗, 侍女는 黑苧, 綺行內人 大紅 苧布로 되어 있어 英祖 이후 王妃는 鄉織, 侍女이하는 苧布가 사용되는 등의 겸소한 기품을 볼 수 있다.

露衣와 공통으로 苔袖가 있는데 白匹段 혹은 白綾 3尺 6寸으로 苔袖의 치수, 소매통이 露衣와 거의 同一하다. 侍女以下는 苔袖를 달지 않는다.

露衣와 長衫의 차이점으로는 長衫에 同正이 달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同正값은 妃嬪의 경우 「白綾 長 1尺 5寸 廣 2寸」이고 尙宮은 白羅, 侍女, 綺行內人은 白紬를 썼다.

길이는 四禮便覽에 의하면 무릎까지로 되어있고 [圖 7]에 보이는 바로는 2尺 8寸 5分으로 30cm 1자로 환산하면 85cm로 무릎경도의 길이에 부합한다. 하지만 소매가 너무 좁은 점등(8寸) 尊子의 長衫과 同一제도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더구나 周尺, 鈞

尺 등 옛 尺度의 기준을 명확히 밝힐 수 없기에 칫수 등의 항목은 다음 기회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妃嬪의 胸背袂長衫의 경우 顯宗妃 「鳳胸背二部」가 나오는데 二部는 鳳胸背 4작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都監에 나오는 「大紅匹段 全廣 4尺」의 全廣 4尺에서 圓經 八寸~九寸의 흉배 4작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추측된다.

英祖 이후에는 織造絲의 내용으로 보아 왕비 大紅, (大紅眞絲 연두낭) 嬪은 鴉靑(鴉靑眞絲 연두낭) 胸背인 것 같다.

Ⅲ. 結 論

翟衣와 그 附隨服飾 제도는 宣祖 이후 점차 격식을 갖추어 英祖 國婚定例와 國朝續五禮儀補를 통하여 法服제도로 정리 확립되어 준수되고 1900年 大韓帝國의 성립으로 明 皇后, 皇太子妃의 翟衣制度로 변천했다. 英祖代 확립된 翟衣는 高宗代 皇后의 제도와는 많은 차이점을 지닌 國俗化된 翟衣이다. 따라서 翟衣 附隨服飾의 차이점과 변천사항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國朝續五禮儀補에 실린 王妃, 嬪宮制度, 增補文獻備考의 皇后 및 皇太子妃 制度를 정리하고 歷代 嘉禮都監, 國婚(尙方)定例에 실린 실제 적용례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형태와 차이점을 확인하여 보았다.

한편으로는 嘉禮에 사용하기 위한 織造에 관하여 都監을 中心으로 살핀 결과 歷代 嘉禮時에는 사치를 막는 방편으로 自國의 織造가 論議되고 실시되었으나 직물 산업이 중국에 놀리어 沈滯된 狀態에서 병란 이후 이조 말엽까지 겸소한 기품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다음 衣襟에 관하여도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고자 하였으나 워낙 광범위하여 露衣와 長衫만을 다루는데 그쳤다. 露衣는 妃嬪의 常服으로 (長衫과 아울러) 金圓紋 露衣가 사용되었고 (表 참조), 公主, 翁主, 大君夫人 禮服으로 單露衣가 사용되었으며 尙宮이하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의 경우에는 四品以上の 正妻가 입는 것으로 그 형태는 확실하지 않았는 바 戊寅年 嘉禮都監에 실린 그림으로 어느정도 구체적인 형태를 잡을 수 있었다. 즉 前考에서 밝힌 翟衣와 마찬가지로 뒤가 길고 앞이 짧은 모습으로 추측되며 315개의 雙鳳紋을 朴達木에 새겨 付金한 것으로 상당히 화려했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長衫 역시 妃嬪의 常服이며 公主, 翁主, 大君夫人의 禮服으로 單長衫과 袂長衫이 입혀졌다. 일반에서는 五品以下 正妻인 자부터 長衫을 입게 하였기 때문에 長

黑長衫

黑段連縫爲之袖端用藍絹

袖一邊長二尺內襖五寸 藍絹



[圖 8]

衫보다 露衣가 上服임을 알 수 있다. 嘉禮時 尙宮以下侍女, 騎行內人은 單長衫이며 步行內人 以下는 입지 못했다. 또한 妃嬪의 胸背夾長衫에는 胸背가 달려 위임을 더해준다.

이상에서 翟衣의 附隨服飾과 織造, 衣襟中의 일부인 露衣, 長衫에 대하여 살펴 보았거니와 아쉬운 것은 옛날의 尺度가 확실치 않아 (周尺, 針尺 등)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구조를 잡을 수 없었음이 유감이며 이 방면에 대한 研究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겠다는 것을 절감하는 바이다.

引用 文 獻

- 1) 增補文獻備考 卷79禮考 十五, 十六

○世子嬪禮服圭以青玉爲之同王世子圭首飾霞帔大帶佩綬蔽膝並同王妃制翟衣以黑緞爲之衣前後貼繡四爪圓龍補而衣制與繡圓翟同王妃裳而裳中下列貼織金鳳玉帶以不雕玉爲之裏以青緞金繪鳳襪以黑緞爲之舄以黑緞爲表白羅爲裏寫端絲花同王妃舄

○王妃禮服圭以白玉爲之同殿下圭首飾略如周禮而加以金粧…霞帔以黑緞爲表紅綉爲裏以金繪雲霞二十八翟文二十六裳以青緞爲之前三幅短而連縫後四幅長而各二幅連縫以相掩前後有襲積中下列貼織金龍大帶以大紅緞爲表白綾爲裏緣綴玉帶以雕玉爲之裏以青緞而金繪鳳佩綬襪並同殿下制蔽膝同殿下蔽膝而無繪舄同殿下舄而惟寫端貼紅緣絲花三

- 2)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1975)

- 3)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 十八, 二十

○皇太子妃…中單玉色紗爲之紅領襖襖領綴文十一或用線羅 蔽膝隨衣色織翟爲章二等間以小輪花三以縲爲領緣織金雲龍文紵絲紗羅隨用 玉穀圭長七寸刻其上琢穀文以錦約其下并鞞 玄革帶青綺鞞描金雲龍文玉事件十金事件四 大帶表裏俱青紅相半其末純紅而下垂織金雲龍文上以朱緣下以綠緣并青綺副帶一綬四采赤白縹綠纁質皆織成間施二玉環小綬三色同大綬 玉佩二珩以下琢飾雲龍文描金上有金鈎以小綬四采副之四采赤白縹綠纁質織成 青襪烏襪以青鞞羅爲之舄用青綺飾以描金雲龍文自線純每舄首加珠三顆

○皇后冠服…中單玉色紗爲之紅領襖襖領綴文十三或用線羅 蔽膝隨衣色織翟爲章三等間以小輪花四以縲爲領緣織金雲龍文紵絲紗羅隨用 玉穀圭長周尺

七寸刻其上琢穀文黃綺約其下別以黃袋鞞之金龍文玉革帶青綺鞞描金雲龍文玉事件十金事件四 大帶表裏俱青紅相半其末純紅而下垂織金雲龍文上以朱緣下以綠緣並青綺幅帶一 綬五采黃赤白縹綠纁質間施二玉環皆織成 玉佩二各用玉珩一瑀一瑀二衝牙一瑀二瑀下有玉花玉花下又垂二玉瑤珠飾雲龍文描金自珩而下繫組五貫以玉珠行則衝牙二滴與二瑀相觸有聲上有金鈎有小綬五采以副之五采黃赤白縹綠纁質織成 青襪寫以青羅爲之舄用青綺飾以描金雲龍文自線純每舄首加珠五顆

- 4) 昭顯世子 嘉禮都監 十月十七日 都監啓曰

- 5) 顯宗妃 嘉禮都監 一房儀軌 8月 5日

尙衣院 官員以提調意啓曰 初三日 壹講時因同知事閱應亨所啓尙 房織錦事冢旨 出去言乎尙房罷之可也 事命下矣 本院年例所織 四色六段十二匹則 時未如役而即今 中宮殿冊禮世子宮 冠禮 冊禮翟衣龍袍等所入則係是法服之不可 闕考至於嘉禮時所用 錦段亦當依 曆錄 次第 織造矣 從前市上頓無質得之處不得已 織造以用 今此所織者 皆是 大禮所用停 罷事何以爲之敢稟 答曰 外人或疑內間 私令本院織造誠極驚駭 豈可家喻而戶曉乎 尙方之官 皆是外人 而何漠然不知 若是之甚乎 此則非予所知讓于都監處之都監以爲 大禮已近 法服織造之學 決難停罷 從之.

- 6) 孝宗實錄 (1) 孝宗二年 八月 庚戌 禮曹參判閱應亨詣闕請對 上召見之 應亨進曰 臣頃於筵席 請罷尙方織造即命停罷矣 今聞此乃王大妃翟衣所用云 翟衣法服也 臣若早知如此 當以勿復爲 私織陳戒 而未及詳知 有此所達 臣誠惶恐

- 7) 昭顯世子 嘉禮都監(表 I 참조)

- 8) 顯宗妃 嘉禮都監 辛卯 7.29 一房儀軌中 本房 所學敎命次 自制以尙衣院 織造而都監 繪粧 爲有 置織造所入 雜物 衣前例磨鍊膜靴事 分付尙衣 院爲旆.

- 9) 肅宗 7年 5月 繼妃 仁顯王妃 嘉禮都監 儀軌…中殿衣襟所入匹段 自尙方織造 既有戊寅前例而 敎命及翟衣所入各樣織造 戊寅年則 自都監爲之 厥後嘉禮冊禮時 則並尙方織造矣 今亦依近例 今尙衣院 趁速舉行何如 傳日依啓 亦令尙方 依曆錄別草書入 以爲或減或仍之也 翟衣加首飾.

- 10) 國婚定例 凡例

- 11) 太宗實錄 卷二十三, 十二年 六月條

- 12) 尙方定例